

일부 어머니의 구강건강 지식 및 행동과 초등학교학생들의 구강건강상태와의 관련성

최 성 숙
서라벌대학 치위생과

Relation Between Oral Health Knowledge and Behavior of Mother and a Oral Health Condition of Children

Sung-Suk Choi

Department of Dental Hygiene, Sorabol College, Gyeongju 165, Korea

ABSTRACT This study was executed from June first to 30th. 2005. The target was first and second graders of Bok-Hyun elementary school and their mothers. The total of participants was 275 persons and the component ratio was 135 first graders and 140 second graders, also 82 boys and 193 girls. They answered to the question sheet by writing out with their own hands. Among the 300 question sheets that were answered, 275 sheets were analyzed, excepting 25 sheets that got poor answer. The results were as follows; (1) About the behavior of mothers and their children for oral health, In mothers' case, 68.8% of them answered that they brush teeth more than 3 times a day and 31.3% answered that they brush teeth less than 2 times a day, so those who brush teeth more than 3 times were more than those who brush teeth less than 2 times In children's case, on the contrary, 14.2% of them answered that they brush teeth more than 3 times a day and 85.8% answered that they brush teeth less than 2 times a day, so those who brush teeth less than 2 times were more. (2) In 7 questions for researching mothers' knowledge level about fluorine, 55.3% of them answer 3~4 questions correctly. In 7 questions for researching mothers' knowledge level about Periodontal disease, 47.3% of them answer 3~4 questions correctly and it was highest. (3) In a case of the relation between oral health knowledge and behavior of mother and frequency of brushing teeth of children, statistical similarity on frequency of brushing teeth was shown($p < 0.05$). (4) In a case of the relation between social-anthropological features of mother and frequency of brushing teeth of children, there was no statistical similarity on age, mothers' educational level, monthly income. However, statistical similarity was shown about existence of mothers' occupation($p < 0.05$).

Key words Oral health knowledge, Oral health behavior, Mother and child

서 론

초등학생들에게 흔히 발생하는 구강질환으로는 치아우식증(충치)의 이환률이 가장 높으며, 그 외에도 부정교합, 치은염 등이 있다. 구강보건의 중요성에 대한 일반인들의 인식은 경제 적 성장, 마스크의 발달, 치과의료사업의 발달 및 의료보험의 확대 적용 등으로 인하여 상당히 향상 되어가고 있다.

구강건강관련행위란 인간의 구강건강이나 구강질병과 관련된 행위를 일련의 연속으로 파악하여 하나의 구강건강관련행위체계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으로서, 건강한 상태에서 행하는 질병 예방행위, 질병에 이환이 의심되는 증상발현상태에서 행하는 질병행위, 질병에의 이환이 진단된 상태에서 행하는 아픈자의

역할행위로 구별된다. 이러한 구강건강관련행위는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좌우되는데 그 결정요인으로 사회구조적 요인, 문화적 요인, 사회심리적요인 등을 그 대표적 요소로 본다¹³⁾.

구강건강행위는 개인, 가정 그리고 지역사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가정은 가장 기본적인 생활터전이며 구강건강측 면에서도 공중구강보건의 기초가 될 수 있다. 가정에서 어머니는 가족의 건강을 보살피는 특수하면서 중요한 위치에 있고 구강건강의 유지 및 증진에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맡고 있다⁷⁾. 특히, 한 가정의 어머니는 자녀의 구강건강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어머니의 구강건강행동은 자녀의 행동이 자연적으로 형성됨에 대하여 가장 중요한 요인이며 이러한 경향은 가정의 사회경제적인 수준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연구 보고도 있다. 어린이들의 구강예방행위를 생활화하기 위한 초등학교에 구강보건프로그램을 시행시, 부모의 참여가 있었던 어린이들 집단이 부모의 참여가 없었던 어린이들보다 어린이들의 참여도가 높았을 뿐 아니라 구강상태의 비교 시에도 유의한

†Corresponding author
H.P: 011-9380-3003
Fax: 053-382-4871
E-mail: chsukdent@hanmail.net

차이를 나타냈다¹⁰⁾.

1986년 Chen은 가족의 수입, 어머니의 직업, 나이, 교육정도, 또한 어머니의 건강신념이 자녀의 건강신념에 영향을 주며 아동의 예방적 치과방문 횟수에도 상관관계가 있음을 보고 한 바 있다. 박과 이⁹⁾는 어머니의 건강신념이 자녀의 건강신념에 영향을 주며 아동의 예방적 치과방문횟수에도 상관관계가 있음을 보고하였다. 공 등⁸⁾은 어머니의 구강보건지식수준과 구강건강행동이 자녀의 구강보건행태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보고하였다.

여러 개의 기존 연구에서 어머니의 구강건강지식, 태도, 행동, 건강신념 그리고 건강관련행위와 자녀의 건강행위나 건강신념과의 관련성이 보고 되었다. 자녀의 건강행위를 나타내는 변수로 칫솔질횟수와 예방목적의 치과의료이용횟수, 그리고 건강신념이 주로 사용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변수들이 자녀의 실제 구강상태를 나타내는 것은 아닐 수도 있다.

따라서 이에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구강건강에 대한 지식 및 행동 양태와 자녀의 실제 구강상태와의 관련성을 알아보고자 한다.

연구대상 및 방법

연구 대상자는 대구시 북구에 소재한 복현 초등학교 1,2학년들과 복현초등학교 1, 2학년 학생들의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2005년 6월 1일부터 2005년 6월 30일 까지 1학년 82명과 2학년 192명중에서 남학생 135명, 여학생 140명으로 총 275명을 대상으로 스스로 답변을 기재하는 자기 기입 방식으로 설문지를 작성케 하여 수합하였다. 설문지에 응답한 300명 중 응답내용이 부실한 25명을 제외한 총 275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사용된 설문지는 어머니의 구강건강지식과 행동에 대한 변수를 조사한 기존의 연구에서 개발한 설문항목들을 각각 인용하였다. 어머니의 구강건강지식에 대한 질문항목은 Lang¹³⁾등의 초등학교 교사들에게 시행한 7개의 측정항목을 인용하였는데 불소와 치주질환에 대한 지식을 질문하였다. 구강건강행위의 변수는 칫솔질 횟수, 치과방문 횟수 등으로 나누어서 조사하였고, 어머니의 치실 사용여부 또한 조사하였다.

어머니의 구강건강지식에 대하여 불소에 대한 정답수가 총 7문항 중 5-7개, 3-4개, 0-2개인 경우 각각 고, 중, 저 군으로

분류하였고 치주질환에 대해서는 정답수가 6-7개, 4-5개, 0-3개인 수준에 따라 각각 고, 중, 저 3개 집단으로 나누었다.

수합된 설문지 중 설문기재 사항 누락, 미기재 등과 같은 불완전한 설문지를 제외시킨후 엑셀 data base program에 사전 coding에 따라 입력한 후 통계분석용 소프트웨어인 SPSS10.0을 이용하여 자녀의 일반적특성과 어머니의 일반적특성을 빈도분석으로 검정 하였으며, 어머니의 불소와 치주질환에 대한 지식수준 및 행위와 자녀의 구강건강행위와 어머니의 구강건강행위와의 관련성을 카이제곱(2 -test) 을 통하여 검정하였다.

결 과

<Table 1>은 대상자의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전체 275명 중에서 초등학교 1학년의 경우 남학생 43명(15.6%)과, 여학생 39명(14.2%)으로 총82명(29.8%)로 구성 되어있고, 초등학교 2

Table 1. Participant distribution (unit : N %)

Group	Junior 1		Junior 2		Total	
	N	%	N	%	N	%
Meal	43	15.6	92	33.5	135	49.1
Femeal	39	14.2	101	36.7	140	50.9
Total	82	29.8	193	70.2	275	100.0

Table 2. Social-anthropological characteristics in Mothers (unit : N %)

Item	Total		
	N	%	
Age	< 29	6	2.2
	30-39	202	73.5
	40 ≤	67	24.4
Education	< High school graduate ≤	136	49.5
	College graduate ≤	139	50.5
Occupation	Exist	197	71.6
	Not exist	78	28.4
Monthly average Income	< 149만원	50	18.2
	150-199	34	12.4
	200만원 ≤	191	69.5

Table 3. Knowledge level about fluorine in Mother

Item	(unit : N %)			
	Correct	Incorrect	Don't know	Tatol
Fluoride makes tooth enamel more Integument to decay (T).	219 (79.6)	21 (7.6)	35 (12.7)	275 (100.0)
Fluoride shows where plaque is on the teeth (F)	143 (52.0)	49 (17.7)	83 (30.3)	275 (100.0)
Fluoride cleans the teeth (F).	106 (38.5)	119 (43.3)	50 (18.2)	275 (100.0)
Fluoride makes teeth whiter (F).	164 (59.6)	61 (22.2)	50 (18.2)	275 (100.0)
Fluoride cubs down on bacteria in the mouth (T).	62 (22.5)	167 (60.7)	46 (16.7)	275 (100.0)
Fluoride is an essential nutrient for bones and teeth (T).	63 (22.9)	147 (53.5)	65 (23.6)	275 (100.0)
Fluoride helps repair small cavities in teeth (T)	83 (30.2)	128 (46.5)	64 (23.3)	275 (100.0)

학년의 경우 남학생 92명(33.5%)과, 여학생 101명(36.7%)으로 총193(70.2%)으로 구성 되어 있으며, 1학년보다 2학년이 더 많았다.

<Table 2>는 어머니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이다. 나이에서는 30-39세가 73.5%로 가장 많았고, 교육수준에서는 고졸이하와 전문대졸이상에서는 큰 차이가 없었으나, 직업의 유무에서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 어머니가 71.6%로 직업을 가지고 있지 않은 어머니가 28.4%로 직업을 가지고 있는 어머니가 직업을 가지고 있지 않은 어머니 보다 훨씬 더 높게 나타났으며, 월 평균소득에서는 200만원 이상이 69.5%로 가장 높았다.

<Table 3>은 어머니의 불소에 대한 지식도이다. 불소는 치아 외과충을 강하게 하여 충치에 잘 안 걸리게한다에서는 정답자가 79.6%로 가장 높았으며, 불소는 치아와 뼈에 중요한 영양소이다에서는 오답자가 53.5%로 가장 높았고, 불소는 치태(플라그)가 치아에 붙어있는 곳을 알려준다에서는 모른다가 30.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Table 4>는 어머니의 치주질환에 대한 지식도이다. 치주질환이 심해지면 치아주변의 골조직까지 망가진다에서는 정답자가 89.1%로 가장 높았으며, 성인이 되어서 치아를 빼게되는 것은 잇몸병보다 충치 때문이다에서는 오답자가 45.1%로 가장 높았고, 치주질환은 바이러스 때문이다 에서는 모른다가 24.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Table 5>는 어머니의 영역별 구강건강 지식도이다. 불소에 대한 지식도에서는 0-2, 3-4, 5-7을 저,중,고로 분류하였고, 어머니의 불소에 대한 지식도는 3-4문제를 정답으로 응답한(중)에서 55.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치주질환에 대한 지식도에서는 0-3, 4-5, 6-7을 저,중,고로 분류하였고, 어머니의 치주질환에 대한 지식도는 4-5문제를 정답으로 응답한(중)에서 47.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Table 6>은 어머니와 자녀의 구강건강행위를 나타낸 것이다. 자녀의 구강건강행위에서 하루 평균 잇솔질횟수에서는 2회 이하가 85.8%를 나타냈고, 3회 이상이 14.2%를 나타냈으며, 자녀의하루 평균 잇솔질횟수에서는 2회이하가 3회이상 보다 높게 나타났고, 자녀의 학교입학 후 치과방문의 유·무에서는 학교입학 후 치과방문을 했다가 68.7%를 나타냈고 학교입학 후 치과방문을 하지 않았다가 31.3%를 나타냈으며, 학교입학 후 치과방문을 했다가 학교입학 후 치과방문을 하지 않았다가 보다

높게 나타났다. 어머니의 구강건강행위에서 하루 평균 잇솔질 횟수에서는 2회이하가 31.3%를 나타냈고, 3회 이상이 68.7%를 나타냈으며, 어머니의 하루 평균 잇솔질횟수에서는 3회 이상이 2회이하 보다 높게 나타났다. 어머니의 연간치과의료기관 이용 횟수에서는 연간 한번도 치과를 방문하지 않았다가 62.5%를 나타냈고, 연간 1회이상 치과를 방문하였다가 37.5%를 나타냈으며, 연간 한번도 치과를 방문하지 않았다가 연간 1회이상 치과를 방문하였다 보다 높게 나타났다. 어머니의 치실의 사용 유·무에서는 치실을 사용한다가 24.0%를 나타냈고, 치실을 사용하지 않는다가 76%를 나타냈으며, 치실의 사용 유·무에서는 치실을 사용하지 않는다가 치실을 사용한다 보다 높게 나타났다.

<Table 7>은 어머니의 구강건강지식 및 행위와 자녀의 칫

Table 5. An area oral health knowledge in Mothers

Average	Knowledge level about fluorine			Knowledge level about periodontal disease		
	Group	N	%	Group	N	%
	0	Lower	74	26.9	Lower	59
1						
2						
3	Middle	152	55.3	Middle	130	47.3
4						
5	High	49	17.8	High	86	31.3
6						
7						

Table 6. Oral health behavior Mothers and Children

Item	Category	(unit:N %)	
		N	%
Oral health behavior of children	<2	236	85.8
Frequency of tooth brushing	3 ≤	39	14.2
Admission to a school visited in dental clinic	Yes	189	68.7
	No	86	31.3
Oral health behavior of mothers	<2	86	31.3
Frequency of tooth brushing	3 ≤	189	68.7
An year of visited in dental clinic	0	172	62.5
	1 ≤	103	37.5
Used of floss silk	Yes	66	24.0
	No	209	76.0

Table 4. Knowledge level about periodontal disease in Mothers

Item	(unit:N %)			
	Correct	Incorrect	Don't know	Tatol
After age 35, tooth loss is more attributable to tooth decay than to gum disease (F).	127(46.2)	124(45.1)	9(8.7)	275(100.0)
Periodontal disease can be progres-sive, leading to lose of bone, that supports the teeth (T).	245(89.1)	13(4.7)	17(6.2)	275(100.0)
Good oral hygiene (brushing and flossing) is more important in preventing gum disease than in preventing tooth decay (T).	128(46.5)	97(35.3)	50(18.2)	275(100.0)
The cause of gum disease is the presence of dental plaque (T).	176(64.0)	55(20.0)	44(16.0)	275(100.0)
Periodontal disease is caused by a virus (F).	122(44.4)	85(30.9)	68(24.7)	275(100.0)
Vitamins and sunlight can prevent periodontal disease(F).	193(70.2)	37(13.5)	45(16.4)	275(100.0)
Slight bleeding upon brushing is an early sign of periodontal disease (T).	225(81.8)	23(8.4)	27(9.8)	275(100.0)

Table 7. Frequency of tooth brushing children and Oral health knowledge mothers of factors

(unit:N %)

Item	Frequency of tooth brushing children			p-value
	< 2	3 ≤	Total	
Knowledge level about fluorine				
Low	61(82.4)	13(17.6)	74(100.0)	0.613
Middle	132(86.6)	20(13.2)	152(100.0)	
High	43(87.8)	6(12.2)	49(100.0)	
Knowledge level about periodontal disease				
Low	51(86.4)	8(13.6)	59(100.0)	0.795
Middle	113(86.9)	17(13.1)	130(100.0)	
High	72(83.7)	14(16.3)	86(100.0)	
Frequency of tooth brushing				
< 2	79(91.9)	7(8.1)	86(100.0)	0.036*
3 ≤	157(83.1)	32(16.9)	189(100.0)	
An year of visited in dental clinic				
0	147(85.5)	25(14.5)	172(100.0)	0.489
1 ≤	89(86.4)	14(13.6)	103(100.0)	
Used of floss silk				
Yes	59(89.4)	7(10.6)	66(100.0)	0.234
No	177(85.5)	32(14.5)	209(100.0)	

*p < 0.05

Table 8. Admission to a school visited in dental clinical and Oral health knowledge of behavior in mothers of factors (unit:N %)

Item	Admission to a school visited in dental clinical			p-value
	Yes	No	Tatol	
Knowledge level about fluorine				
Low	51(68.9)	23(31.1)	74(100.0)	0.705
Middle	102(67.1)	50(32.9)	152(100.0)	
High	36(73.5)	13(26.5)	49(100.0)	
Knowledge level about periodontal disease				
Low	40(67.8)	19(32.2)	59(100.0)	0.773
Middle	92(70.8)	38(29.2)	130(100.0)	
High	57(66.3)	29(33.7)	86(100.0)	
Frequency of tooth brushing				
< 2	58(67.4)	28(32.6)	86(100.0)	0.430
3 ≤	131(69.3)	58(30.7)	189(100.0)	
An year of visited in dental clinic				
0	124(72.1)	48(27.9)	172(100.0)	0.078
1 ≤	65(63.1)	38(36.9)	103(100.0)	
Used of floss silk				
Yes	49(74.2)	17(25.8)	66(100.0)	0.472
No	140(68.0)	69(32.0)	209(100.0)	

*p < 0.05

솔질 횟수와와의 관련성을 나타낸 것이다. 어머니의 구강건강행위 중 칫솔질의 횟수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p < 0.05).

<Table 8>은 어머니의 구강건강지식 및 행위와 학교 입학 후 치과방문과의 관련성을 나타낸 것이다. 어머니의 구강건강지식 및 행위와 학교 입학 후 치과방문과의 관련성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는 것이 없었다.

<Table 9>는 어머니의 사회인구학적인 요인과 자녀의 칫솔질 횟수와와의 관련성을 나타낸 것이다.

어머니의 사회인구학적 요인과 자녀의 칫솔질 횟수와와의 관련성에서는 어머니의 직업의 유·무 따라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p < 0.05).

<Table 10>은 어머니의 사회인구학적 요인과 학교 입학 후 치과방문과의 관련성을 나타낸 것이다. 어머니의 사회인구학적 요인과 학교 입학 후 치과방문과의 관련성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고 찰

건강과 질병은 생물학적 수준에서만이 아니라 사회심리학적 인 측면과 함께 이해되고 규정되어야 하는 동적 과정이다. 이러한 점은 대부분의 질병발생원인이 단순히 특정 병원체나 생

Table 9. Frequency of tooth brushing children and Social-anthropological in mothers of factors (unit:N %)

Item	Frequency of tooth brushing children			p-value
	< 2	3 ≤	Tatol	
Age				
< 29	5(83.3)	1(16.7)	6(100.0)	
30-39	174(86.1)	28(13.9)	202(100.0)	
40 ≤	57(85.1)	10(14.9)	67(100.0)	0.962
Education				
< High school graduate	117(86.0)	19(14.0)	136(100.0)	
College graduate ≤	119(85.6)	20(14.4)	139(100.0)	0.529
Occupation				
Exist	73(93.6)	5(6.4)	78(100.0)	
Not exist	163(82.7)	34(17.3)	197(100.0)	0.013*
Monthly average Income				
< 149만원	46(92.0)	4(8.0)	50(100.0)	
150-199	29(85.3)	5(14.7)	34(100.0)	
200만원 ≤	161(84.3)	30(15.7)	191(100.0)	0.379

*p < 0.05, **p < 0.01

Table 10. Admission to a school after dental clinical visited children and Social-anthropological in mothers of factors (unit:N %)

Item	Admission to a school visited in dental clinical			p-value
	Yes	No	Tatol	
Age				
< 29	4(66.7)	2(33.3)	6(100.0)	
30-39	137(67.8)	65(32.2)	202(100.0)	
40 ≤	48(71.6)	19(28.4)	67(100.0)	0.838
Education				
< High school graduate	91(66.9)	45(33.1)	136(100.0)	
College graduate ≤	98(70.5)	71(29.5)	139(100.0)	0.304
Occupation				
Exist	50(64.1)	28(35.9)	78(100.0)	
Not exist	139(70.6)	58(29.4)	197(100.0)	0.185
Monthly average Income				
< 149만원	37(74.0)	13(26.0)	50(100.0)	
150-199	23(67.6)	11(32.4)	34(100.0)	
200만원 ≤	129(67.5)	62(32.5)	191(100.0)	0.673

*p < 0.05, **p < 0.01

물학적 이상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경제적 요인이 작용한다는 것이다.

구강건강관련 행위에 영향을 미치거나 행위의 결정인자를 규명하기 위한 모형으로 사회심리학적 모형에 속하는 건강신념모형이 많이 사용되어지고 있으나 구강건강 관련행위를 구강건강 신념모형으로 설명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도 어려운 점은 추상적인 구강신념을 어떻게 측정할 것이냐는 것이다⁸⁾. 자녀의 구강건강 행위와 관련성을 가지는 것으로 어머니의 사회 인구학적 요인을 들 수 있는데 1986년 Chen은 어머니의 소득, 직업, 교육수준이 자녀의 칫솔질 횟수, 예방목적의 치과방문과 관련성이 있다고 하였고, 1970년 Rayner은 자녀의 구강보건형태에 대한 어머니의 사회계층별 행위 차이를 지적하였다.

본 연구에서 어머니의 구강건강 지식 및 행위와 초등학생들의 구강건강 상태와의 관련성을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어머니

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에서는 30-39세의 나이가 73.5%로 가장 많았다. 이것은 최 등¹¹⁾의 73.7%와 유사하게 나타났고, 직업의 유·무에서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 어머니가 71.6%, 직업을 가지고 있지 않은 어머니가 28.4%로 직업을 가지고 있는 어머니가 높게 나타났으며, 월평균 소득에서 200만 원 이상이 69.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어머니의 불소에 대한 지식수준은 치주질환에 대한 지식수준에 비해 낮은 점수를 보였다. 이것은 불소의 작용이나 효과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이 등⁷⁾은 가정주부의 불소에 대한 지식을 평가하기 위해 불소가 우식예방에 효과가 있는지를 아는 기에 대해 '안다', '모른다' 형식으로 질문하였는데 '안다'가 91.6%로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반면에 콰과 김¹¹⁾의 학교집단불소용액 양치 사업에 대한 학부모의 인지를 37.7%로 보고 하였다. 그러므로 한국인의 불소에 대한

지식수준을 단지 우식에방효과가 있다는 단편적인 지식만을 알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어머니의 구강건강지식 및 행위와 자녀의 칫솔질 횟수와의 관련성에서는 어머니의 칫솔질 횟수와 자녀의 칫솔질 횟수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함이 나타났다($p < 0.05$). 이것은 우⁶의 잇솔질횟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이 나타난 결과와 유사하게 나타났다. 어머니의 사회인구학적 요인과 자녀의 칫솔질횟수와의 관련성에서는 직업의 유·무에서의 통계적으로 유의함이 나타났다($p < 0.05$). 그리고 가계소득이 200만원이상인 집단이 치과를 방문하는 횟수가 149만원이하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것은 소득이 높을수록 치과방문을 자주하는것을 알 수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구강건강 지식 및 행동과 초등학생들의 구강건강상태와의 관련성에 관심을 가지고 분석하였고, 설문지 항목의 수 및 각 문항에 대한 이해의 부족함이 있을 수 있다는 제한점과 대구시내의 초등학교 학생들만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본 연구의 결과가 우리나라 전체 어머니들과 초등학생들을 대표할 수 없다는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추후의 연구에서는 구강건강 지식 및 행동에 미칠 것으로 추정되는 요인을 확대함은 물론 이러한 요인들의 정확하고도 체계적인 조사분석이 보다 다양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요 약

본 연구는 대구시 북구에 소재한 복현 초등학교 1,2학년들과 복현초등학교 1,2학년 학생들의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2005년 6월 1일부터 2005년 6월 30일 까지 1학년 82명과 2학년 192명중에서 남학생 135명, 여학생 140명으로 총 275명을 대상으로 스스로 답변을 기재하는 자기 기입 방식으로 설문지를 작성케 하여 수합하였다. 설문지에 응답한 300명 중 응답내용이 부실한 25명을 제외한 총 275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1. 어머니와 자녀의 구강건강 행위 중에서 어머니의 구강건강행위에서는 하루평균 잇솔질횟수가 3회이상인 68.7%로 2회이하가 31.3%로 어머니의 하루평균 잇솔질횟수는 3회 이상인 2회이하 보다 높게 나타났다. 반면에 자녀의 구강건강행위에서는 하루평균 잇솔질횟수가 3회이상인 14.2%로 2회이하가 85.8%로 3회이상 보다 2회이하가 높게 나타났다.
2. 어머니의 불소에 대한 지식수준은 총 7문항중 3-4문항에서 정답으로 응답한 '중'에서 55.3%로 가장 높게 났고, 어머니의 치주질환에 대한 지식수준은 총 7문항중 4-5문항에서 정답으로 응답한 '중'에서 47.3%로 가장 높게 나

타났다.

3. 어머니의 구강건강지식 및 행위와 자녀의 칫솔질 횟수와의 관련성에서는 칫솔질 횟수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함이 나타났다($p < 0.05$)
4. 어머니의 사회인구학적인 요인과 자녀의 칫솔질횟수와의 관련성에서 나이, 교육수준, 월평균소득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함이 없었으나, 직업의 유·무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함이 나타났다($p < 0.05$)

참고문헌

1. 광정민, 김종배: 학자모의 구강보건사업에 관한 지식수준과 지지정도에 대한 조사연구. 대한구강보건학회지 20(1): 87-106, 1996.
2. 김영희, 송근배, 이성국: 어머니의 구강보건지식 및 행동과 초등학생의 구강보건행태. 한국학교보건학회지 15(1): 83-92, 2002.
3. 공만석, 이홍수, 김수남: 모친의 구강보건에 대한 지식, 태도, 행동과 아동의 구강보건행태의 관련성에 관한 연구. 대한구강보건학회지 18(1): 84-93, 1994.
4. 김영수, 김종배: 학교계속구강건강관리사업에 관한 사례연구. 대한구강보건학회지 9(1): 111-124, 1985.
5. 박득희, 이광희: 어머니의 건강신념이 아동의 건강신념과 치과의료이용행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대한소아치과학회지 21(1): 345-349, 1994.
6. 우승현: 어머니의 구강건강 지식 및 행위와 자녀의 구강건강행위와의 관련성.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0.
7. 이재화, 이수정, 김진범: 대도시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가정주부의 구강보건지식과 행동. 대한구강보건학회지 20(4): 509-529, 1996.
8. 이홍수: 모친과 아동에서 구강건강신념과 구강건강관련행위의 연관성에 관한 연구. 대한구강보건학회지 20(1): 11-30, 1996.
9. 이홍수, 김경희: 전라북도 일부지역 경제활동 여성의 구강보건행태에 관한연구. 대한구강보건학회지 21(4): 701-714, 1997.
10. 이혜영, 김종배: 서울특별시민의 가정구강보건 실태에 관한 조사연구. 대한구강보건학회지 18(2): 526-544, 1994.
11. 최연희, 서일, 권호근, 지선하: 어머니의 구강건강지식 및 행위와 자녀의 구강건강상태와의 관련성. 대한구강보건학회지 23(1): 45-61, 1999.
12. Chen MS: Children's preventive dental behavior in relation to their mother's socio-economic status, health beliefs and dental behaviors. J Dent Child March-April 105-109, 1986.
13. Lang P, Woolfolk MW, Faja BW: Oral health knowledge and attitudes of elementary schoolteachers in Michigan. J Public Health Dent 49(1): 44-50, 1989.
14. Kegeles SS: Some motives for seeking preventive dental care. J Am Dent Assoc 67: 90-98, 1963.
15. Rayner JF: Socioeconomic status and factors influencing the dental health practices of mothers. Am J Pub Health 60(7): 1250-1258, 1970.

(Received November 4, 2005; Accepted December 1, 2005)

